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을 한마디로 소개 하자면 ‘주 안에서의 다양함’ 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국적이 다양합니다. 필리핀을 포함하여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곳이 그저 여러 나라 사람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단순하게 표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름으로 인하여 같은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모두가 선교사들이지만 신앙적인 교파가 다르고, 또한 그들을 파송한 선교 기관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선교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성경이 없는 현지에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도 있고, 구제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이 있고,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기관이 있는 등 다양한 선교 기관들이 나름대로 특화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각자 각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고 있음을 봅니다. 나의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고, 나의 방법만이 최선이 아니고, 나의 열정만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산 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오랜동안 이곳에서 생활하신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 선교사님은 아침에 저를 보면 아침 인사를 특이하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Good morning?’ 또는 이곳 지방어로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에게만은 ‘Did you have a breakfast?’라고 아침부터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다른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한국에서는 아침 인사로 ‘식사 하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을 듣고 저의 문화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정중하게 아침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 남을 배려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이들이 비록 나의 생각과 방법과 우선순위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또한 다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 않고 다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은 이곳 전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저희들에게 e-mail을 보낼 때마다 글 서두에 항상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한 후 얻은 진리인가 봅니다.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Romans 15:7)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고, 맡은 사역을 감당 하려면 현지 언어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이곳 할머니께서 저에게 현지어로 길을 물어 보실 정도로 제 외모는 현지화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 언어는 지금까지 알던 기존의 문법 체계로는 표현이 어려워져서, 제가 알고 있는 알팍한 언어의 선입관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곳에는 전문적으로 선교사들에게 현지 언어를 가르쳐 주는 강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비교적 국제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비싼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에 꼭 맞는 젊은 현지인 목사님 내외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서로 바쁘게 일주일에 두번씩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오셔서 목사님은 저를, 사모님은 저의 아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위하여 시험도 치고, 실제 상황과 같이 생동감이 넘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언어 공부는 조금씩 뒷 전으로 미루어 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이 더 우선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마다 이들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계속 닦아야만 할 정도입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저희가 받은 은혜와 저희의 연약함을 나눌 때에 참으로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는 외국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부유한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저희와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전에 외국인인 저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일에 기대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비로서 서로가 기도해 주고 서로 세워 주어야 하는 주 안에서 한 동역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현지어를 가르쳐 주는 댓가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제가 준 감사비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잘 설득을 해서 그 마음만은 받기로하고 감사비는 강권하여 잘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합심하여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저희들을 단편적인 어떠한 물질의 공급자로서가 아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그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에 낡은 벽과 천정을 보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며 열심히 성전을 보수하고, 그 곳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식사도 잘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음 만날 시간이 벌써 기다려 집니다. 할렐루야!
(박인호)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은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Prayer Request



-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 기도의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채워지도록
- 흠어져 있는 두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하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